

北 지명-사투리 상표 급증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북한의 지명과 용어 등을 포함하는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광복후 지난 91년까지 북한의 산과 하천 등 지명에 대한 상표출원이 196건에 불과했으나 남북대화 재개를 계기로 92년 이후 현재까지 95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동안 출원된 총 1153건 가운데 평양과 영변·해주·개성 등 널리 알려진 지명을 상표로 출원한 것이 7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백두산 등 북한의 명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 269건, 아바이 등 북한의 일상용어를 포함한 것이 115건, 대동강 등 하천을 대상으로 한 것이 3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지명을 이용한 상표중 백두산이 12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금강산 95건, 신덕 87건, 풍산 74건, 평양 68건, 함흥 66건, 개성 60건, 고산 46건, 송림 43건, 경성 34건, 옥류관 30건, 아바이 25건, 천지연 23건, 소백산 21건, 오마니 15건, 대동강 6건, 압록강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 임한복 상표3과장은 "최근 남북 화해분위기의 영향으로 북한지명을 이용한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유명한 지명만으로 이뤄진 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산지표시에 해 당돼 상표등록이 될 수 없으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춘 창작적 요소를 충분히 담아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문화일보

콘텐츠저작권관리 ASP솔루션, 하반기에 붐물

소리바다 사태와 9월 저작권법 개정이 앞두고, 음악·교육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유료화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콘텐츠 보안(저작권관리) 솔루션 업체들은 중저가형의 대중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ASP(소프트웨어제공임대) 모델로 하반기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2년여동안 기술개발에만 집중했던 테르텐(대표 윤석구 www.teruten.com)과 마크애니의 관계사인 인투미디어(대표 김종원)는 초기에 수억원씩 투자하지 않아도 고객사가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RM(디지털저작권관리), 워터마킹 ASP(소프트웨어제공임대)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고개를 가웃하는 분위기도 적지않다. 콘텐츠 저작권관리 ASP 서비스는 2000년 말부터 파수닷컴에서 제공한 바 있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SP 서비스를 준비중인 업체들은 파수닷컴의 ASP 서비스가 시장상황에 비해 너무 일찍 시작돼 실패했다며, 최근 디지털저작권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상황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이다.

- ◆ 테르텐, 사용자 편의성과 유연한 과금정책으로 승부수 테르텐(대표 윤석구 www.teruten.com)이 내놓은 미디어셸(MediaShell) ASP서비스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동안 콘텐츠 업체들은 값비싼 미디어 서버를 사야 했고, 전용 뷰어도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손봐야 했다.

또 소비자들도 반복재생과 빨리감기, 되감기가 불가능하고 전용뷰어를 여러개 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DRM이 적용된 서비스의 경우 자주 끊기는 현상은 가장 큰 불편함으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미디어셸'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다.

콘텐츠 업체는 미디어 서버를 사지 않아도 되며, 전용뷰어가 필요없다.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미디어셸'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설치되며, 실시간 버퍼링 기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모두를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테르텐이 운영체제 수준에서 파일을 통제하고 암호화 시켜(256비트 암호알고리즘 AES내장)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시큐어OS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테르텐은 또 과금정책도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다.

콘텐츠 업체에게 수억원의 초기 투자비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10만 사용자 이하의 경우 월120만원(1인당 12원)을 책정했다. 여기서 사용자수는 테르텐이 운영하는 DRM서버에 접속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다.

몇번 접속했느냐는 기준이 되지 않는 것.

따라서 콘텐츠 사업자는 다양한 유료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

윤석구 사장은 “운영체제 플랫폼 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 형식을 지원하고 암호화된 키 값을 서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배포된 콘텐츠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다”며 “음악 및 교육 콘텐츠 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에게 제 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르텐은 온라인 콘텐츠 판매외에도 CD로 콘텐츠를 구워서 유통하는 기업들에게도 콘텐츠 저작권 관리를 지원한다.

테르텐은 2000년 7월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의 공학도들이 모여 만든 벤처 기업으로, 윤석구 사장은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출신이며 추연우 이사는 국내 최초의 저작권 관리 솔루션 업체 비알네트콤의 연구개발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합류한 권오봉 전무이사는 마크애니 영업본부장 출신이다.

이 회사는 '미디어셀 외에 문서보안 솔루션 '디큐셀' 과 이미지 저작권리 솔루션 '이미지웍스 및 인터넷 광고차단방지 솔루션 '해드키퍼 등을 개발하고 있다.

◆ 다양한 인증기술 활용한다.

인투미디어 최근 설립된 인투미디어(대표 김종원)는 마크애니 및 마크텍의 관계회사다.

이 회사 김종원 사장은 마크애니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DRM(디지털저작권관리)외에도 워터마킹, PKI(공개키기반구조)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 관리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무선 인터넷 콘텐츠 관리나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관리, 그리고 인증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유료 서비스시 콘텐츠에 사용자 정보를 옮겨 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시장에도 나 설 계획이다.

◆ DRM과 워터마킹 기술은 무엇인가 DRM(디지털저작권 관리)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텍스트,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유료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콘텐츠 사업자가 DRM 서비스를 도입하면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자기가 정한 규칙을 충족할 경우에만 열어볼 수 있다. 복제를 하더라도 모든 콘텐츠는 암호화돼 있어 돈을 내지 않은 네티즌은 열어 볼 수가 없다.

워터마킹이란 내성(이미지에 새겨진 워터마킹이 깨지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발급된 디지털 정보의 원본을 증명해 내는 기술이다.

MP3플레이어, PDA, 무선전화기 같은 휴대용 기기에서 활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기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워터마킹의 경우 기밀 문서의 추적이 가능한 '사내 정보유출 방지(문서보안) 솔루션'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비디오 워터마킹은 DVR(디지털영상감시시스템)에 적용된다.

DRM은 사용자 인증과 요금부분에서, 워터마킹은 이미지 저작권 확인 부분에서 각별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